



일주문

“직장상사·동료·후배가 스승”

임오년을 푸는 불자 ① 한국은행불교회 하용이 간사장



“올해의 대가인” 선정
해공 태고종 총무부장(대구 관암사 주지)은 구립 20일 대구 사랑시민회에서 주최한 ‘올해의 대가인’으로 선정됐다.



중·고생에 장학금 전달
지원 부산 문수사 주지는 구립 26일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중·고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미군아파트 반대 시위
진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용산 미군 아파트 건설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영기천도 위한 법문
수전 전 해인사 승가대 학장 스님은 구립 26일 부산 구룡사에서 영기천도를 위한 법문을 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성덕 불교자선봉사자연연합회장은 17일 연합회 강북법당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다.



발전다짐 신년인사회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8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박물관, 미술관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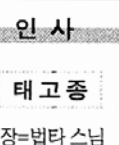
다보강좌 초청강연
정병조 동국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강좌에 초청돼 강연한다.(02)719-1855



4불지회 합동송년법회
장영호 MBC불교연구회장은 구립 27일 여의도포교원에서 여의도 소재 4개 불지회와 함께 합동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청년회 26대회장에
오홍수 전직종 전국청년회 수석부회장은 구립 23일 열린 제 26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전국 청년회 26대 회장에 선출됐다.



인사
태고종 <총무원 총무국장 겸 기획국장 =진해 스님, 교무국장 겸 재무국장=법타스님

“불자에게 가장 소중한 미덕은 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직장 내 포교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처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동료, 후배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그들을 저의 거울, 스승으로 삼는 데서 올해 포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겁니다.”
14년째 한국은행 불교회 살림을 도맡아 온 하용이 간사장(49·한국은행 은행국 대외협력팀장·사진). 그는 IMF 이후 금융가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임오년 새 해 한국은행 불교회원들의 수행과 신심을 다지고 일반 행원



연히 남들이 모두 도와주고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하 간사장의 마음 쏟음은 수십 년의 수행 활동으로 뒤늦게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는 한국은행 불교회의 정기법회, 전국금융단 불교연합회의 합동법회나 용맹정진법회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한국은행 광주지점에서 근무할 때 무각사와 문민정사의 거사법회에도 꾸준히 나갔다. 이와 함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불비니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모르면서 불교를 가르쳐 준다고 초심자들에게 이런 저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반성하고 있다”는 하 간사장은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행원 불

행원 초발심 유도 진력...서울도심에 수행공간 마련 서원

들에게 전법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우선 하 간사장은 작은 풀 하나, 굴러가는 돌맹이에도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2백여 회원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서로를 믿고 따르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러 스님과 법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법문들을 들을 수 있는 법회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펴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 불교회는 매주 정주, 묘주 스님과 김태영, 박남수 법사의 법문을 번갈아가며 듣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회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 간사장은 “14년 동안 불자회의 실무를 맡고 보니, 이제 법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나올까, 법사님 설오는 잘 될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합참하고 정진하다 보면 자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행원 불자들을 위한 수행 공간 마련을 서원했다는 하용이 간사장은 “행원 불자 중에는 퇴근 시간을 쪼개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금융기관이 많은 서울 중심가에 행원 전문 수행처를 마련해 행원 도반들의 신심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hapa.com

“내겐 동국대가 신행원찰 ‘생활경전’ 금년안에 제작”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정인악 회장

“내게 있어 동국대학은 불교를 배우는 상아탑 이전에 수행의 원찰입니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를 원찰의 단위 수행단체라 생각하고 키워나가겠습니다.”

11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정인악(69·남양사 회장, 대한불교전국신앙인연합회 총재) 신임 회장은 총동창회를 불교를 배우고 신앙을 성취할 수 있는 모임으로 한 단계 이끌어 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우선사업으로 내세운 것이 장학회 설립이다. 하지만 이 장학회는 여느 장학회처럼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

보시용 <생활경전(가칭)> 발간을 주목적으로 하게 된다.
“불교학자들과 동국역경원의 자문을 얻어 불자들에게 가장 요긴한 경전내용을 뽑아 1천 쪽 분량의 <생활경전>을 연내 제작할 생각입니다. 동문들에게는 성경처럼 항상 휴대하며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 회장은 이외에도 동문회보를 펴내고 여성합창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보는 2천여 동문들의 수행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계간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고, 여성합창단은 여성동문(7백여 명)들의 화합과 불교음악 보급을 위한 정회장의 복안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정인악 8대 회장 취임식은 11일 오후 6시 30분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에서 열린다.

김종근 기자

임오 序詩

혜중

동해의 황금 물보라
헤치며 떠오르는
한 덩이 붉은 해 눈맞춤하러 가자
한 덩이 붉은 해 마시러 가자
한 덩이 붉은 해 품으러 가자

백마여
은바닥 위 뒤로 채며
바람갈이 달려오라

저래여, 민족이여
자,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나
가슴을 열리라
한덩이 붉은 해를 향해
역구는 멀리 보내
바람결에 날려 보내

건강 소망 행복
풍요로움 실어다 주옵소서
한 덩이 붉은 해
백마여, 신고 달려오라.

임오년 새해를 맞아 연두송 임오 序詩를 보내온 대한 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혜중 스님은 8일 부산 코모도 호텔 총무실에서 시집 <그리움>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대한불교 진흥원 소쩍새 마을 위문

대한불교 진흥원 서돈각 이사장과 최명준 사무국장 등은 지난 12월 24일 장애인 복지시설 원주 소쩍새 마을을 방문, 금일봉과 과일 빵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소쩍새 마을을 직접 둘러본 서돈각 이사장은 “불교계 단체들이 자주 방문해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토로했다.



소림정사 등 해오름법회 봉행

장원 구룡사, 금강불교아카데미, 전국 백련회, 소림정사 등은 합동으로 구립 31일부터 1일까지 경주 감포에서 ‘임오년 새해 아침 해오름 대법회’를 봉행했다.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철 스님(소림정사 주지)은 “올 한해 말처럼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참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금강경독송회 정초기도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일 충북 증원군 세계사에서 임오년 새해를 맞아 정초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16개 지역 법당과 미국 일본 등에서 온 1천여 명의 회원들은 <금강경> 1독과 미륵전여래불 정진, 발원 등을 하며 “마음공부를 통해 내 자신과 이웃을 밝혀 나갈 것”이라는 서원을 세웠다.



열반종 미안마스님 초청법회

대한불교 열반종(총무원장 해곡)은 3일 한 미안마 불교교류 15주년을 맞아 미안마 대승정 우산다 바테 스님 초청 법회를 용인시 외우정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열반종 포교부장 동진 스님, 성대석 신도회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우산다 바테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한 미안마의 불교발전을 기원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이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전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교상미국의 우진왕(優進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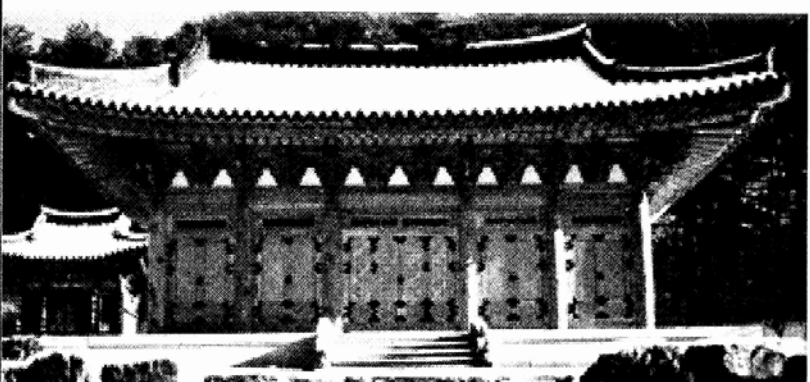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 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북대구축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 농협올라인게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